

2009년 중국 노동시장, 노사관계 현황 및 2010년 전망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9년 세계경제는 대공황 이래 가장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글로벌 경기침체에 빠져 있다. IMF, 유럽연합 통계국은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해 온 미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경제대국들이 2009년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중국은 주요 경제대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 21일 중국 통계국은 기자회견을 통해 2009년 국내총생산액(GDP)은 335,353억 위안으로 지난해보다 8.7% 증가했고, 분기별로 보면 1, 2분기 각각 6.2%, 7.9%에 그쳤던 증가율이 3분기, 4분기 각각 9.1%, 10.7%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중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2009년 초 경제성장률 둔화로 전례 없는 한파가 몰아쳤던 고용시장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2008년 하반기 이후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및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시행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수출량의 감소로 기업이 생산량을 축소하면서 해고, 감원 등으로 노사관계는 여전히 불안정한 한 해였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가 일부 성(省)을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조사에 따르면, 2008년 10월부터 2009년 1월까지 금융위기로 기업의 일자리가 약 8%로 감소했고, 도시지역 실업률이 상승했다. 이는 최근 6년 동안 처음 나타난 현상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网监测中心)’가 분기별로 발표하는 ‘인력자원시장 직업수급현황 정보(人力资源市场职业供求状况

信息)¹⁾와 중국 사회과학원이 매년 발간하는 ‘2010년 중국사회 형세분석 및 예측(2010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이하, ‘사회청서’)²⁾ 및 ‘2010년 중국경제 형세분석 및 예측(2010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이하, ‘경제청서’)³⁾ 등을 중심으로 2009년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전반적인 상황 및 2010년 전망을 간략하게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노동시장 기본 현황

2009년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 1,102만 명, 등기실업률 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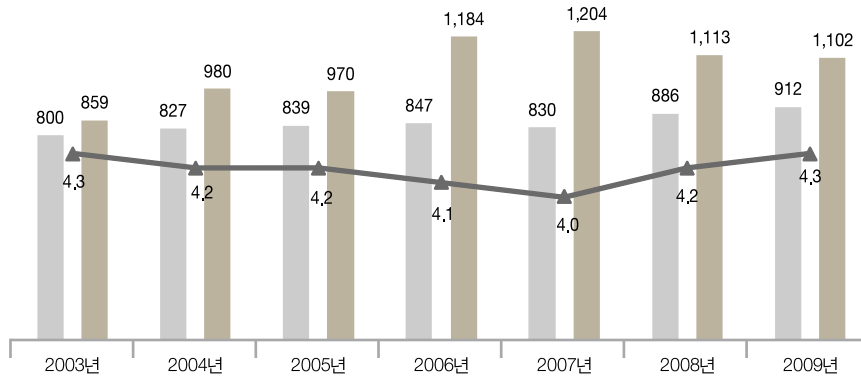
지난 1월 22일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人力资源和社会保障部)’는 2009년도 4분기 기자회견에서 2009년 사업 성과 및 2010년 사업 방향을 보고하였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인청지(尹成基) 대변인의 보고에 따르면, 2009년 전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는 1,102만 명으로 2009년 목표치인 900만 명의 122%를 달성했고, 면직(下崗)실업인원 재취업자 수는 514만 명으로 2009년 목표치(500만 명)의 103%, 취업관련인원 취업자 수는 164만 명으로 목표치(100만 명)의 164%를 달성했다. 또한, 대학 졸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취업촉진행동’과 각종 취업보조정책 추진을 통한 일자리 확대, 그리고 미취업 졸업자 및 생계곤란가정 졸업자 관련 취업지원활동 지속적 추진 등의 노력으로 2009년 대졸자 취업률은 87%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2009년 말 현재 중국 도시지역의 등기실업자 수는 지난해 886만 명보다 0.1%가 증가한 921만 명이며, 등기실업률은 4.3%이다. 이에 더하여 2010년 대학 졸업예정자 수는 2009년보다 20만 명 많은 631만 명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졸자 취업난은 2010년에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1) http://www.lm.gov.cn/gb/data/node_4743.htm 참조(최종검색일 2010년 2월 15일).

2) 중국사회과학원, 『2010年中国社会形势分析与预测』, 북경: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9년.

3) 중국사회과학원, 『2010年中国经济形势分析与预测』, 북경: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9년.

[그림 1] 도시지역 등기실업자 수, 등기실업률 및 신규취업자 수 추이



주 : * 2009년 통계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09년 4분기 언론발표회
(http://www.lm.gov.cn/gb/data/2010-01/22/content_346347.htm)

자료출처 : 중국통계국, 『2008년 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http://www.stats.gov.cn/tjgb/qttjgb/qgqttjgb/t_20090519_402559984.htm)

도시지역 노동수요 전년 동기대비 증가

‘중국 인력자원시장 정보넷 모니터링 센터(中国人力资源市场信息网监测中心)’가 전국 103개 도시지역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수집하여 발간한 「2009년 4/4분기 도시 공공취업서비스기구 시장 수급현황 분석(2009年第四季度部分城市公共就业服务机构市场供求状况分析⁴⁾」에 따르면, 지난해와 동일한 조사 대상지역인 90개 도시에서 기업이 공공취업서비스기구를 통해 채용한 인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2% 증가한 125만 명으로 조사되었고, 노동시장에 진입한 구직자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9% 증가한 68만 7,000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준다. 2009년 4분기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은 각각 521만 7,000명, 536만 1,000천 명으로 노동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구조는 변화가 없었지만, 구인자 수를 구직자 수로 나눈 구인비율은 0.97로 분기 0.86보다 0.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4) 자세한 내용은 http://www.lm.gov.cn/gb/data/node_4743.htm 참조(최종검색일 2010년 2월 15일).

금융위기의 여파로 수출주도형인 중국경제가 크게 위축되면서 2008년 3월 전년 동기대비 30.6% 증가한 수출규모가 2009년 3월 전년 동기대비 -17.1% 감소하였다. 통상적으로 중국은 수출량이 1% 감소할 때마다 2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약 950만 개의 일자리가 유실되었다고 할 수 있다. 2008년 4분기 0.85로 큰 폭으로 하락했던 구인비율이 중국정부의 경기부양책으로 내수가 증가하고, 7~8월 이후 수출세가 호전되면서 기업 노동수요가 증가하여 2009년 3분기, 4분기의 구인비율은 각각 0.94, 0.97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 중부, 서부지역의 구인비율은 각각 1.01, 0.92, 0.93이며, 동부 지역 중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민동남(闽东南), 장강삼각주(长江三角洲) 및 활발해(环渤海) 지역의 구인비율은 각각 1.26, 1.14, 0.99 및 0.95로 주강삼각주 지역의 노동력 부족현상이 최근 들어 다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 노동시장은 저렴하고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고급 기술 인력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다. 특히, 기사(技师), 고급 기사(高级技师) 및 고급기술자(高级工程师)의 구인비율은 각각 1.89, 1.80 및 2.02로 인력난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9년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요·공급 상황

분기/현황	조사규모(도시수/총인구)	노동수요	노동공급	구인배율
1/4분기	103/1.9억 명	4,792,329명	5,593,386명	0.86
2/4분기	101/1.9억 명	5,156,632명	5,871,052명	0.88
3/4분기	102/1.9억 명	5,767,240명	6,105,137명	0.94
4/4분기	103/1.8억 명	5,217,100명	5,361,081명	0.97

자료출처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lm.gov.cn/gb/data/node_4743.htm

3차산업의 노동수요 여전히 높아

2009년 4분기 노동수급 현황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1차산업은 2.7%, 2차산업은 39.6% 3차산업은 57.7%의 노동수요를 차지하고 있다. 세계적인 불황으로 2008년 4분기 제조업 노동수요가 26.2%로 감소하면서 전체 산업 대비 2차산업 노동수요가 감소했지만, 중국경제가 회복되면서

제조업 분야의 고용이 증가하여 2차산업 노동수요가 전년 동기대비 4.9% 증가하였다. 3차산업 노동수요는 전년 동기대비 4.2% 감소했지만 중국 노동시장의 주력산업의 지위는 변화가 없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노동수요 중 80%의 노동수요가 제조업(32.5%), 도소매업(15.4%), 숙박요식업(11.9%), 주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9.6%),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6.45) 및 건축업(4.2%)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제조업의 노동수요는 2차산업 노동수요의 82%, 건축업의 노동수요는 2차산업 노동수요의 10.5%를 차지했으며, 도소매업, 숙박요식업, 주민서비스와 기타서비스업, 임대와 비즈니스 서비스업의 노동수요는 3차산업 노동수요의 각각 26.6%, 20.7%, 11% 및 1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2009년 산업별 노동수요 현황

(단위: 명/%)

분기/현황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
1/4분기	115,710(2.4)	1,841,800(38.4)	2,834,819(59.2)
2/4분기	105,923(2.1)	1,955,721(37.9)	3,094,988(60.0)
3/4분기	128,174(2.2)	2,281,586(39.6)	3,357,480(58.2)
4/4분기	138,781(2.7)	2,069,030(39.6)	3,009,289(57.7)

자료출처: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lm.gov.cn/gb/data/node_4743.htm)

사영기업, 개체경영 등 비공유제 부문 노동수요 증가

사용자별 노동수요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4분기 기업의 노동수요가 전체의 97.1%를 차지했고, 기관 및 사업단위의 노동수요 비중은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의 노동수요 중 내 자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73%로 이 중 사영기업, 유한책임회사, 소규모 자영업자 및 주식유한회사의 노동수요는 각각 26.6%, 22.0%, 10.9% 및 9.0%를 차지했고,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의 노동수요 및 외상투자기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7.0%, 9.1%를 차지했으며, 국유, 집체기업 등 공유제기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3.8%, 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사영기업, 개체경영 등 비공유제 부문의 노동수요는 소폭 증가했

으며, 국유기업, 집체기업 등 공유제 부문과 홍콩, 마카오, 대만투자기업 및 외상투자기업의 노동 수요는 각각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2009년 소유제별 노동수요 상황

(단위: 명/%)

기업유형 / 분기	1분기(수요/비율)	2분기(수요/비율)	3분기(수요/비율)	4분기(수요/비율)
기업	4,625,336(96.5)	4,928,551(95.6)	5,556,969(96.4)	5,068,024(97.1)
국내자본기업	3,542,047(76.6)	3,694,373(75.0)	4,208,037(75.7)	3,699,284(73.0)
국유기업	126,767(2.7)	128,576(2.6)	143,775(2.6)	193,435(3.8)
집체기업	110,623(2.4)	116,419(2.4)	138,900(2.5)	115,702(2.3)
주식합작기업	178,432(3.9)	171,878(3.5)	180,047(3.2)	149,325(2.9)
연합경영기업	85,824(1.9)	85,178(1.7)	93,797(1.7)	129,934(2.6)
유한책임회사	1,114,046(24.1)	1,248,435(25.3)	1,419,282(25.5)	1,117,018(22.0)
주식유한회사	496,704(10.7)	481,014(9.8)	498,274(9.0)	457,158(9.0)
사영기업	1,251,096(27.0)	1,264,813(25.7)	1,502,485(27.0)	1,345,776(26.6)
기타기업	178,555(3.9)	198,060(4.0)	231,477(4.2)	190,936(3.8)
대만, 홍콩, 마카오 투자기업	287,161(6.2)	319,989(6.5)	345,413(6.2)	352,740(7.0)
외상투자기업	328,506(7.1)	399,980(8.1)	461,695(8.3)	461,456(9.1)
개체경영	467,622(10.1)	514,209(10.4)	541,824(9.8)	554,544(10.9)
사업단위	26,371(0.6)	33,958(0.7)	33,094(0.6)	25,835(0.5)
기관	5,671(0.1)	15,468(0.3)	13,221(0.2)	10,930(0.2)
기타	134,951(2.8)	178,655(3.4)	163,956(2.8)	112,311(2.2)
합계	4,792,329(100)	5,156,632(100)	5,767,240(100)	5,217,100(100)

자료출처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lm.gov.cn/gb/data/node_4743.htm)

구직자 중 실업자 비율이 50% 이상 차지

전체 구직자 중 실업자와 외지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4 분기의 경우 구직자 중 실업자의 비중은 52.7%(이 중, 신규증가 실업청년 22.8%, 마찰적 실업자

16.6%, 기타 실업자 13.2%임)이고, 외지 노동자의 비중은 34.7%(이 중, 당해시 농촌인원 15%, 타지 출신 19.7%)로 전체 구직자의 87.4%를 차지하고 있다. 실업자 중 청년실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분기(2.1%), 2분기(1.5%), 3분기(2.1%) 및 4분기(1.3%) 늘어나 청년실업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 노동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약 87%의 고용 단위가 구직자의 학력을 제한하였다. 고졸은 전체 노동수요의 37.5%(이 중, 직업학교(职高), 기술학교(技校), 중등전문학교(中专)가 5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중졸(27.6%), 전문대졸(14.6%), 대졸(6.8%), 대학원 이상(0.3%)이 뒤를 이었다. 구인비율 역시 중학교(0.98), 직업학교, 기술학교 등 고등학교 졸업자(0.89, 이 중 직업학교, 기술학교 등은 1.07)가 높았고, 전문대(0.78), 대학(0.71), 대학원 이상(0.71) 순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구직자별 노동공급현황

(단위: 명/%)

구직자/시기	2009년 1/4분기 (구직자수/비중)	2009년 2/4분기 (구직자수/비중)	2009년 3/4분기 (구직자수/비중)	2009년 4/4분기 (구직자수/비중)
신규증가 실업청년	1,202,633(21.5)	1,326,885(22.6)	1,448,780(23.7)	1,224,187(22.8)
당해연도 전문대이상 졸업생	493,864(41.1)	565,485(42.6)	611,701(42.2)	486,418(39.7)
전직과정 실업자	906,464(16.2)	969,034(16.5)	985,036(16.1)	892,321(16.6)
기타 실업자	646,281(11.6)	661,627(11.3)	731,042(12.0)	712,722(13.2)
재직자	238,073 (4.3)	255,067 (4.3)	323,043 (5.3)	284,059 (5.3)
면직자(하강)	184,322 (3.3)	214,663 (3.7)	180,890 (3.0)	187,728 (3.5)
퇴직자	27,521 (0.5)	31,263 (0.5)	30,349 (0.5)	32,132 (0.6)
재학생	143,866 (2.6)	169,407 (2.9)	152,448 (2.5)	165,879 (3.1)
당해시 농촌인원	1,027,652(18.4)	877,797(15.0)	918,141(15.0)	805,000(15.0)
타지 출신자	1,216,574(21.8)	1,365,339(23.3)	1,335,408(21.9)	1,057,053(19.7)
전 체	5,593,386(100)	5,871,052(100)	4,165,582(100)	5,361,081(100)

자료출처 : 중국인력자원시장 정보망 모니터링 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인력자원시장 수급 상황 분석』.
(http://www.lm.gov.cn/gb/data/node_4743.htm)

■ 2009년 노동시장의 평가 및 특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9년 중국 취업시장 상황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편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일시적으로 위축되었던 중국경제가 회복되면서 노동수요가 늘어나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수가 1,10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11만 명 감소했지만, 당초 계획했던 목표와 비교하면 122%라는 높은 달성률을 기록했다. 경기침체로 악화된 고용상황을 개선할 목적으로 중국정부는 2008년 9월부터 2009년 2월까지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 특히 농민공과 대졸 예정자의 취업률 증가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4분기 기자회견에 따르면, 경영이 어려운 기업의 사회보험료 납부를 연기해 주거나 보험료율을 인하하는 방법을 통해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2009년 10월 현재 338억 5,000만 위안의 기업경비가 절감되었고, 최소 162만 개 기업과 6,100만 명 노동자에게 그러한 혜택이 돌아간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민공의 취업상황도 당초 우려한 것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2월 2일 국무원 기자회견에서 중앙 농촌산업 지도소조 사무실 천시원(陈锡文) 주임은 경제가 회복되고, 당과 중앙정부의 농민공 일자리창출 및 창업 노력이 효과를 나타내면서 2009년 11월 현재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농민공의 수는 전국적으로 1억 5,200만 명으로 금융위기 이전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⁵⁾ 또한, 대졸자의 취업률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양호한 87%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해 미취업 대졸자가 80만 명이고, 2010년 대졸 예정자가 지난해보다 20만 명 많은 631만 명인 관계로 대졸자의 취업난은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사회청서'에 따르면, 경기침체 이후 일자리의 질이 나빠져 대졸자의 초임 평균이 낮아졌으며, 과거 취업률이 높아 인기 학과였던 경영, 무역 및 외국어 학과의 실업률은 오히려 상승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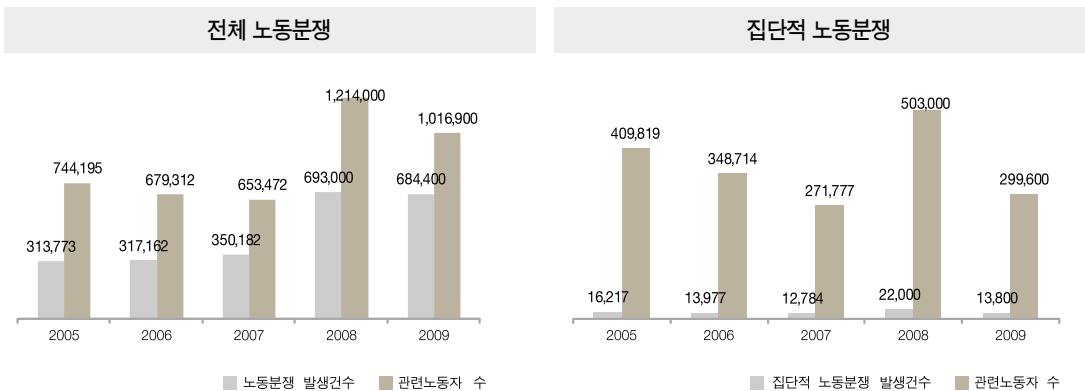
5) http://www.china.com.cn/gonghui/2010-02/02/content_19351930.htm(최종검색일 2010년 2월 5일).

■ 노사관계 기본 현황

불안정한 노사관계로 노동분쟁이 빈발

2008년 하반기 이후 글로벌 경제위기로 기업, 특히 수출주도형 기업과 중소기업이 전대미문의 경영난을 경험했다. 이로 인해 기업이 생산규모를 축소하면서 2009년 한 해 동안 해고, 감원 등을 둘러싼 노사갈등이 악화되었다.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2009년 한 해 동안 전국 각급 노동분쟁중재기구가 접수한 노동분쟁건수는 68만 4,400건으로 지난해 69만 3,000건보다 1.31% 줄어들었고, 관련노동자 수도 100만 6,900명으로 지난해 121만 4,000명보다 16.25% 감소했지만, 노동분쟁 발생건수는 여전히 증가하는 추세였다.⁶⁾

[그림 2] 노동분쟁 발생건수 및 관련노동자 수 변화 추이



주 : 2009년 통계는 인력자원과 사회보장부 2009년 4분기 언론발표회
(http://www.lm.gov.cn/gb/data/2010-01/22/content_346347.htm)

출처 : 중국통계국, 『2008년 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http://www.stats.gov.cn/tjgb/qttjgb/qgqttjgb/t20090519_402559984.htm)

6) http://www.lm.gov.cn/gb/data/2010-01/22/content_346347.htm(최종검색일 2010년 2월 8일).

노동분쟁 발생건수의 증가는 사용자의 불법행위가 증가한 탓도 있겠지만, 개별적 노동관계를 규범화한 ‘노동계약법’과 중재비용의 무료화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시행과 글로벌 경제위기가 중첩되면서 노동분쟁의 발생건수와 관련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위기 이후 중국 노사관계의 변화와 특징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중국 노사관계에 다양한 변화와 특징이 나타났다. 중국 노동관계학원 치아오쩌엔 교수는 ‘사회청서’에서 중국 기업이 세계적인 불황으로 전대미문의 경영난에 직면하면서 노사관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와 특징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첫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이 해고가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고용유연성이 높은 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의 채용을 선호하면서 노사관계의 불안정성이 확대되었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생산량 감소에 따라 이전의 1일 8시간, 주 40시간의 ‘표준근로시간제’ 대신 생산량에 따라 기업이 탄력적으로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을 부여할 수 있는 ‘종합계산 근로시간제’를 적용하는 기업이 많아졌다. 셋째, 경영난으로 지급능력이 부족한 기업이 늘어나면서 사회보험 해약률이 증가하였고, 사회보험료 납부와 관련된 분쟁이 급증하였다. 기업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많은 기업이 과중한 사회보험료에 부담을 가지고 있고, 기업이 납부하는 사회보험료와 주택공적금 비율이 선진국 수준에 해당하는 노동자 임금총액의 40~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영난에 직면한 일부 기업이 노사쌍방의 협의를 통해 해고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채 노동자에게 암묵적으로 사직을 강요하는 등 노동법률의 내용을 교묘하게 회피하는 이른바 탈법, 편법행위가 급증하였다. 다섯째, 노동분쟁이 빈발하게 발생했고, 집단적 노동분쟁 사건이 비중이 증가하였다. 동시에 노사 간의 충돌이 격화되면서 유혈, 폭력을 동반한 노동자의 집단행동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경제위기 동안 기업의 비용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7) 경영난의 겪고 있는 기업에게 사회보험부담률을 일시적으로 삭감하여 일자리 안정을 유지하는 정책을 말한다.

‘五缓四减三补’⁷⁾ 등의 정책은 경제위기 시에 기업 생존에 필요한 작용을 하지만, 경제위기 이후 통화팽창, 사회보험급여 지급불능 등의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노사관계 불안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맺음말

2008년 하반기 이래 ‘노동계약법’, ‘취업촉진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의 시행과 글로벌 경제 위기가 중첩되면서, 중국 노동시장과 노사관계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봉착하였다. 그러나 2009년 고용시장은 경제위기에도 불과하고 대체로 안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2010년 고용시장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중국 정부당국은 2010년 취업상황, 특히 대학생 취업상황이 낙관적이지만은 않다고 지적했다. 경기가 회복되기 시작한 2009년 3분기 이후, 일부 지역과 업종의 주문량이 증가하면서 일자리가 다소 늘어났지만, 기업들의 노동수요는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 게다가 지난해 대졸자 가운데 80만 명이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매년 수백만 명의 중등전문학교, 고등학교, 대졸자 및 농민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2010년 노동수형 불균형은 1,200만 명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대학생 등 청년실업난은 2010년도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KL**